

커피로 농촌을 물들이는 '밭두렁 바리스타'의 도전

90 후 '농촌 사장' 윤춘희가 바꾸는 시골 풍경

저 푸른 벼밭 옆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풍정시 동성용진 평안촌에 자리잡은 '바테그림(田画里)' 야외커피숍이 바로 그 '그림같은' 집이다. 아치형으로 우거진 꽃나무 대문 옆 하얀 담벼락에는 '잡간의 머무름이 커다란 위로가 되는 공간'이라는 문구가 정갈하게 적혀있고 그 앞편으로 푸르게 펼쳐진 '벼밭 뷰'가 그야말로 한쪽의 그림이었다.

꽃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손님 맛을 준비로 분주한 카페 주인 윤춘희(34세) 씨와 동업자 리영민(42세) 씨가 마당에 있는 꽃나무에 물을 주며 무더위 속 시원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현재 카페 운영을 맡고 있는 윤춘희 씨는 지난 10년간 간호사로 2년, 광고회사에서 6년, 그리고 현재는 앞치마를 두른 바리스타로 변신해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출산후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간호사직을 그만뒀어요. 출산후가중에는 생계를 위해 아기 기저귀 판매로 버텨도 봤구요."

하지만 그것도 생계 유지의 한계에 다달았고 형편이 가장 어렵던 시기 커피숍 창업에 결심하게 된 건 같은 회사 선배였던 현재 카페 공동 운영을 맡고 있는 리영민씨의 제안에서였다.

"솔직히 처음에는 커피숍이 만만해 보였어요. 커피만 내릴 줄 알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막상 시작해보니 경영관리, 인테리어 등등 고민할 게 산더미였습니다. 겁도 없이 시작했는데 슬슬 걱정이 되더라



▲ 룡정시 동성용진 평안촌에서 야외커피숍 '바테그림'을 운영하고 있는 윤춘희씨

구요. 지금 생각해보면 '멘망의 헤딩'이었습시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그녀는 오전이면 커피숍 아르바이트로 기술을 익혔고 오후에는 야외커피숍을 꾸려갈 터전을 가꾸었으며 저녁에는 광고회사 야근 근무를 해가며 '쓰리잡'을 병행하던 시절도 있었다. 창업을 결심해서부터 이 같은 고된 준비 기간이 일년 죽히 걸려 2023년 8월 '바테그림' 야외커피숍이 드디어 손님을 맞게 되었다. 바쁜 와중에도 윤춘희씨는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은 물론 지금도 짬짬이

시간을 내어 핸드커피 창시자 황춘선 선생에게서 제대로 된 커피와 경영수업을 받으며 내실을 꼼꼼히 다져가고 있다.

"하루에 3~4시간만 자면서 버텼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 살던 집까지 팔며 전 재산을 건 무모한 도전

창업을 결정했을 때 가족의 반대는 극심했다. 특히 두번이나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둔 그녀에게 크게 실망했던 뒤라 가족들의 반대는 더 클 수밖에 없었다.

"부모님은 '이번에도 오래 못 버틸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먹은 뒤였어요."

결국 그는 살던 집을 팔아 창업 밑천을 마련하고 동업자와 함께 오래동안 비워둔 평안촌 리영민씨의 친척집을 개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렇게 150평방미터 규모의 실내 공간과 400평방미터의 넓은 야외 정원을 가진 공간이 탄생했다.

"무슨 일이든 끝장을 보는 성격입니다. 간혹 일을 추진하는 순서가 뒤바뀌었을지라도 일단 질러놓고 뛰어드는 타입이죠."

▲ 농촌 정취 담은 '바테그림', 자연과 어우러진 힐링 공간

"농촌의 정취를 살리면서도 맛으로 승부하고 싶었어요."

윤춘희씨는 연길 시내에 이미 커피숍이 포화상태라 야외커피숍으로 발길을 돌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재빨리 눈치 채고 이 점에 주목했다.

"꽃으로 가득한 정원에서 어린아이들은 물론, 노년 부모님들을 모시고 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니라 농촌의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요."

메뉴 구성만 보아도 '바테그림'의 컨셉은 한눈에 잡히기 쉽다. 대부분의 야외커피숍은 스카게티나 떡볶이 등 간편한 음식을 제공하지만 그녀는 '입쌀만두'와 '훈둔'이라는 현지 특색을 살린 음식을 메인 메뉴로 내세웠고 곧 순대국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400평방미터의 넓은 야외 정원은 '바테그림'의 가장 큰 자랑거리다. 윤춘희씨와 리영민씨는 직접 꽃씨를 뿌리고 가꾸며 계절마다 갖가지 꽃과 나무로 공간을 변화시키고 있다.

"튤립과 같은 꽃들은 개화기도 짧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심어야 해서 번거롭지만 손님들이 '예쁘다'고 하면 보람

을 느껴요. 해마다 다른 꽃을 심어 새로움을 주려고 노력하죠."

현재 50여종의 꽃들로 정원을 가득 채운 그들의 노력으로 지난해부터는 야외 웨딩촬영장으로도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이곳을 찾는 신혼부부의 발길이 잦아졌다.

"처음에는 관광객보다 풍경 현지 손님이 많았는데 지금은 SNS를 통해 찾아오는 손님이 많아졌어요."

지난해에는 연변에서 선정된 19개 왕홍커피숍들이 모인 연변왕홍커피기업화담회에도 참가해 그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 꽃으로 물든 야외 정원, 마들과 함께 성장

'바테그림'의 성공으로 린근 민박과 협력해 배달 시스템을 구축했고 마을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정원 가꾸기와 쓰레기 수거도 도와주며 마을 주민들과의 끈끈함도 깊어졌다.

"어르신들 밖에 안 계시던 시골에 젊은이들이 북적이니 마을에 생기가 돌고 어르신들도 덩달아 신이 나 열심히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세요. 저희로서는 너무나도 고마운 따름입니다."

농촌생활 경험이 전무했던 윤춘희 씨였지만 어느새 마을 느티나무 아래서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며 그들과 함께 걸음은 차 한잔이 진속한 근무환경으로 되어버렸다. 마을 인정 또한 그녀에게 끊임없는 동력이 되어준다.

"처음에는 그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시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에서의 삶이 저에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꽃도 저마다 다 피는 때가 있다고 하죠. 저 마당에도 보시면요 봄에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씨 뿌려도 가을에 피는 꽃도 있듯이 자기만의 속도가 있습니다. 저도 저만의 속도에 맞추어 그 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꽃길을 걷고 싶어요."

푸르른 논과 화사한 꽃들 사이로 흐르는 커피 향기는 그녀의 단순한 창업 성공담을 넘어 농촌의 터전을 지켜가며 커피 한잔으로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

/ 김영화 김가혜 기자



연변, 북경국제 문화관광소비박람회에 등장



▲ 북경국제문화관광소비박람회에 참가한 연변의 특산물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북경국제문화관광소비박람회가 북경 전시관에서 개최되었다. 연변주 문화라지오텔레비전방송및관광국은 주내 일부 문화관광기업을 조직하여 길림성문화관광청을 따라 이번 활동에 참가했다.

북경국제문화관광소비박람회는 전국 최초 문화관광소비로 명명된 업종 성회이다. '문화관광 동행·아름다운 생활'을 주제로 열린 2025년 전시회는 전시면적이 3만 평방미터이며 문화관광 산업시상 상하류를 포괄했으나 '문화 비즈니스 관광 스포츠 전시회'의 융합발전을 추진하고 문화관광산업과 문화관광소비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시회는 서로 배우는 세계, 대미중국, 매력북경, 도시선물, 디지털 문화관광, 문화관광자원, 문화관광장비, 문화관광융합 총 8개의 주제 전시구역으로 나누어 문화관광산업의 새로운 제품, 새로운 장면, 새로운 수요, 새로운 체험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주었다.

연변주문화라지오텔레비전방송및관광국은 민숙, 흥색, 피서, 변경 등 연변의 특색 문화관광자원에 초점을 맞추고 이번 국제화 교류 협력 홍보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하여 연변 특색이 있는 주제 부스를 설치함으로써 국내외 많은 전시업체와 관람객을 흡인했다.

전시회 기간 사업인원들은 연변 문화관광 선전 영상을 방영하고 코드를 스캔해 팔로우하면 작은 선물을 증정했으며 변경관광, 미식 및 자가용관광 내용을 담은 선전수첩을 배포하고 현장 해설 등의 방식으로 연변을 소개하고 홍보했다.

/ 본지종합

빛과 공연이 수놓는 안도 야간관광 떠나볼까요

- 2025 '장백산에서의 만남, 안도 야간관광 시즌' 계절 행사 막 올려

2025 '장백산에서의 만남, 안도 야간관광 시즌' 계절 행사가 26일 저녁, 장백산 북쪽비탈에 위치한 국가삼림공원 월랑만풍경구에서 본격 막을 올렸다. 행사는 안도 문화관광의 다원화 발전을 한층 더 추진하고 지역 식별도를 갖춘 문화관광 '밤'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깃들자 장백산 북쪽비탈 국가삼림공원 월랑만풍경구는 온통 불빛으로 수놓아지며 눈부신 자태를 뽐낸 가운데 즐겁고 흥겨운 타악기 공연 <화합의 소리>로 이날 행사의 서막을 열었다.

개막식에서는 또 '장백산 1호' 상품인 '장백산 1호' 실경 공연 <장백련가> 프로젝트가 발표되고 현판이 수여되었다.

<장백련가> 프로젝트는 길림장백산삼림공업그룹 백하림업분회사에서 기획하고 건설했는데 총부지면적 5,525평방미터에 총투자액은 10,185.09만원으로 동북 3성 최초의 대형 실외 산수 실경극이다. 이 프로젝트는 소나무와 측백나무의 사랑을 '주선'으로, 여러 민족이 함께 수놓은 괴물에게 맞서 싸우며 아름다운 터전을 건설하는 이야기를 '보조'로 전개된다. 또한 무대, 인공산과 실제



경관 공간을 활용하여 다층적인 대형 시각 효과를 연출하고 구별별 빛과 그림자의 연동을 형성해 관객들을 장백산의 전생과 현생을 넘나드는 빛과 그림자의 려정으로 이끈다.

의식이 끝난 후 대형 산수 실경극 <장백련가>의 2025년 첫 공연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는데 심금을 울리는 예술적 시각의 향연으로 안도의 야간 경계에 밝은 색채를 더해주었다.

주최측에 따르면 2025 '장백산에서의 만남, 안도 야간관광 시즌' 계절 행사 기간 안도현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한 관광 로선인 '여름철 야간 관광의 즐거움 - 안도의 밤은 더욱 깊어간다', '여름철 산수비경 려행 - 숲속에서 숨쉬고 샘물로 치유', '여름철 민속풍정 려행 - 민족풍정을 만기' 등 세가지 독창적인 여름철 관광 로선을 선보인다.

이중 '여름철 야간관광의 즐거움 - 안도의 밤은 더욱 깊어간다' 관광 로선은 관광객들을 백화곡조선족옛마을로 이끌어 야경 사진을 찍으면서 조선족 문화의 매력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대천하 야간 퓨류로 빛과 안개가 뒤섞인 환상적인 야간 퓨류 려행을 열어주기도 하고 또 대회대에서는 '잠들지 않는 숲'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관광 로선외에도 안도현에서는 관광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야간 운치 빛 폭포', '야간 퓨류 체험', '별이 흐르는 야간 캠핑장', '야시장 체험', '밤의 아름다운 담타' 등 다양한 야간관광 프로젝트를 내놓아 관광객들로 하여금 안도의 색다른 '밤'생활을 몰입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김영화 김가혜 기자



6월 26일, 원항빌딩 북쪽에 위치한 연길시 하남야시장이 개장된 가운데 시민들에게 무더위 속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제공하고 있다. / 김영화기자